

# 한·미 FTA에 따른 충북경제의 영향과 과제

조택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1. 서론

제2의 개국이라고까지 불리는 한미FTA가 오랜 협상 끝에 지난 4월 타결되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세계의 시장이라는 미국과의 FTA 타결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 이외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FTA 타결의 영향은 지역경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TA 협상 진행과정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지방 차원에서의 논의는 적었다. 이는 FTA라는 것이 국가적 결정사안이라 지방에서는 참여자의 입장보다는 관망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었고, 연구차원에서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지역의 자료나 인적자원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에 원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산업구조가 상이하므로 한·미 FTA로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것이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그렇듯이 충북도 전국평균에 비해 1차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제조업도 특정 산업의 편중이 큰 편이다. 따라서 FTA 타결로 산업별로 받게 되는 영향의 명암에 따라 지역경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차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어쩌면 우리나라 경제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한·미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북의 산업 중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미 FTA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 2. 한·미 FTA의 지역경제 파급 경로

한·미 FTA타결이 지역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같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 (1) 긍정적 효과의 파급경로

#### ① 생산 및 고용창출

긍정적 효과의 파급경로를 살펴보면 우선, 수출가격인하에 따른 수출증가로 생산 및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미국 측의 관세인하(철폐)는 대미 수출제품의 가격인하요인을 발생시켜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대미수출품의 가격하락은 미국소비자의 수입수요의 증가로 수출확대가 기대되며, 특히 미국시장에서 경쟁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가격하락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미 수출물량의 증가는 기업의 생산 증대로 이어져, 노동수요 증가를 유발시킬 것이다. 즉,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충북 고용시장의 활성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미 FTA의 최대 수혜품목중의 하나인 자동차의 수출증가 효과에 따라 충북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의 매출증가가 예상된다. 충북은 완성차 제조업체가 소재하지 않는 반면 자동차 관련 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을 합산)은 2005년 기준 충북 제조업 대비 사업체수 3.1%, 출하액 4.1%, 부가가치 3.1%를 점유하고 있다.

### ②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 활성화

생산 증가에 따른 고용증가는 지역주민의 소득증가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다시 소비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증가에 따른 생산증가와 고용증가는 다시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소득증가에 의한 소비증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2005년 기준 충북 GRDP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점유하는 비중은 4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95년 48.3%에서 '00년 45.4%로 소비지출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의 확대는 지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토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 ③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한·미 FTA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하여 충북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FTA에 따른 FDI증대효과는 2005년 OECD의 분석결과<sup>1)</sup>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투자와 서비스 부문에서의 추가개방과 각종 규제 완화 등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한국에서의 사업여건이 개선되어 외국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투자에 대한 유인이 있을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한미 FTA를 통해 경제통합, 시장확대 및 국제 무역 및 투자관련 거래비용감소가 가능하고 이는 미국 및 역외국가들의 한국내 투자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개방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방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이에 따른 투자위험감소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FDI의 증가는 최근 기업의 입지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충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충북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04년 10억달러(전국대비 8.3%)로 최고치를 달성한 후 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1) OECD, 2006. "Analysis of the Impact on Investment Provis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Paris : OECD.

〈표 15〉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추이

(신고기준, 단위: 백만달러, %)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국	3,928	15,250	2,268	9,093	2,847	12,792	3,427	11,564	1,499	4,915
충북	33 (0.8)	166 (1.1)	22 (1.0)	48 (0.5)	39 (1.4)	1,060 (8.3)	33 (1.0)	389 (3.4)	16 (1.1)	87 (1.8)

자료: 산업자원부, 충청북도

#### ④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미국산 수입품의 가격하락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며 이는 기업의 국내시장과 해외시장간의 가격차별을 유지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

미국산 제품과 미국에서 생산된 세계 유명 브랜드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R&D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2) 부정적 효과의 파급경로

#### ① 취약한 산업의 구조조정

미국산 수입제품의 가격하락에 따른 시장잠식은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야기할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해 기업들은 과거 국내 기업끼리의 경쟁에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제품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인수·합병 또는 퇴출 같은 구조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지역경제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적고 중소기업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은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장압력에 의해 경쟁력이 낮은 기업의 퇴출 또는 합병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②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위에서 언급한 산업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은 단기적 실업증대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구조조정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의 고용의존도가 높은 충북의 경우, 노동시장 불안요인 가중될 우려가 있다.

〈그림 2〉 제조업의 한·미 FTA의 파급경로



충북의 300인 이하 중소기업 고용자수 비중은 2000년 89.8%(전국 88.0%)에서 '03년 91.2%(전국 87.8%), '05년 90.3%(전국 88.1%)로 전국평균에 비해 중소기업 의존도가 높다. 사업체 수로는 '05년 기준 충북의 300인 이하 사업체는 97,071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99.9%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한미 FTA의 충북지역경제 파급효과

#### 1) 지역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 ① 전기·전자산업

충북의 전기·전자산업은 충북의 주력산업으로 2005년 기준 충북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의 31.4% 점유하고 있다. 세부산업별로는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업이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가 6.7%를 점유하고 있다. 전기전자관련 업종의 부가가치 비중이 2004년 39.5%에서 2005년 31.4%로 감소한 것은 지역 주력 기업의 역외 이전의 결과로 보인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수출구조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충북의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2006년 기준 충북전체 수출의 71.3%를 점유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7.8%로 충북 전체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9.2%를 하회하고 있으나 충북의 제1수출산업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전자산업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미 FTA체결에 따른 관세인하는 업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인하는 전기전자 관련기업의 매출 및 수출증대가 전망되지만, 미국의 우리나라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0.2%<sup>2)</sup>로 관세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16〉 충북 전기·전자관련 수출 추이

(단위: 백만달러, %)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연평균
충북수출	4,748 (100.0)	4,019 (100.0)	7,546 (100.0)	8,054 (100.0)	9.2
전기전자수출	3,654 (77.0)	2,880 (71.7)	5,883 (78.0)	5,743 (71.3)	7.8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17〉 충북 전기·전자관련 산업 부가가치 추이

(단위: 백만원, %)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연평균증가율 (00~05)
충북	10,799,724 (100.0)	10,983,837 (100.0)	13,329,984 (100.0)	13,669,699 (100.0)	4.83
제조업	10,707,915 (99.15)	10,867,475 (98.94)	13,204,081 (99.06)	13,556,106 (99.17)	4.8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54,205 (0.51)	63,128 (0.58)	51,871 (0.39)	76,344 (0.56)	7.0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616,869 (5.76)	702,115 (6.46)	795,648 (6.03)	901,786 (6.65)	7.89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016,531 (28.17)	1,939,641 (17.85)	4,067,461 (30.80)	2,831,103 (20.88)	-1.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26,383 (1.18)	155,019 (1.43)	297,495 (2.25)	451,216 (3.33)	28.98
소계	3,813,988 (35.62)	2,859,903 (26.32)	5,212,475 (39.48)	4,260,449 (31.43)	2.24

주: 산업별 비중은 충북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에 대한 비중임.  
자료: 통계청

2) 전국경제연합회, FTA추진에 따른 산업별 득실분석 2005. 12.

② 섬유산업

충북의 섬유관련 산업 비중은 2000년 4.2%에서 2005년 2.1%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 역시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이 -12.5%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표적 노동집약적 상품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중국, 베트남 등으로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렇듯 섬유관련 산업의 지역내 비중이 낮아 한미 FTA에 따른 파급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섬유관련 제품의 한미 FTA 협상결과 가격경쟁력 제고, 대미수출환경 개선에 따라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우리나라의 9.3% 수준의 관세가 폐지되더라도 대미 섬유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 섬유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지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대가 우려된다.

〈표 18〉 충북 섬유 관련 산업 부가가치 추이

(단위: 백만원, %)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연평균증가율 (00~05)
충 북	10,799,724 (100.0)	10,983,837 (100.0)	13,329,984 (100.0)	13,669,699 (100.0)	4.83
제조업(15~37)	10,707,915 (99.15)	10,867,475 (98.94)	13,204,081 (99.06)	13,556,106 (99.17)	4.83
섬유제품 제조업	443,839 (4.14)	355,816 (3.27)	326,535 (2.47)	278,659 (2.06)	-8.89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5,941 (0.06)	8,127 (0.07)	6,849 (0.05)	3,045 (0.02)	-12.51
소 계	449,780 (4.20)	363,943 (3.35)	333,384 (2.52)	281,704 (2.08)	-8.93

주: 산업별 비중은 충북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에 대한 비중임  
 자료: 통계청

③ 기계산업

충북의 기계 산업이 점유하는 비중은 '00년 10.4%에서 '05년 16.7%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산업별 증가율은 제1차 금속산업이 26.6%, 조립금속 15.1%, 기계관련 산업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은 15.28%로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 4.8%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충북의 새로운 주요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계류 수출이 충북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 9.8%를 점유하고 있어 비중은 낮지만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연평균 증가율은 28.3%로 나타났다.

기계산업의 경우,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은 수입기계류 제품의 시장잠식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중·저급 분야의 경우 가격하락에 따른 매출 및 수출 증가효과가 기대되며 일본, 독일 등에서 수입하는 정밀 기계 등에서 무역창출효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의 경우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FTA의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2006년 기준 충북 전체수출의 2.7%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전년대비 21.3% 증가)

〈표 19〉 충북 기계류 산업 부가가치 추이

(단위: 백만원, %)

부가가치(백만원)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연평균증가율 (00~05)
충 북	10,799,724 (100.0)	10,983,837 (100.0)	13,329,984 (100.0)	13,669,699 (100.0)	4.83
제조업(15~37)	10,707,915 (99.15)	10,867,475 (98.94)	13,204,081 (99.06)	13,556,106 (99.17)	4.83
제1차 금속산업	151,372 (1.40)	128,004 (1.17)	207,630 (1.56)	492,126 (3.60)	26.59
조립금속제품	336,445 (3.12)	383,672 (3.49)	555,909 (4.17)	679,678 (4.97)	15.10
기타 기계 및 장비	414,257 (3.84)	438,190 (3.99)	507,037 (3.80)	697,612 (5.10)	10.99
자동차 및 트레일러	200,471 (1.86)	251,693 (2.29)	287,541 (2.16)	396,353 (2.90)	14.61
기타 운송장비	21,541 (0.20)	30,426 (0.28)	19,856 (0.15)	22,907 (0.17)	1.24
소 계	1,124,086 (10.41)	1,231,985 (11.22)	1,577,973 (11.84)	2,288,676 (16.74)	15.28

주: 산업별 비중은 충북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에 대한 비중임.

자료: 통계청

〈표 20〉 충북 기계류 수출 추이

(단위: 백만달러, %)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연평균증가율 (00~06)
충북수출	4,748 (100.0)	4,019 (100.0)	7,546 (100.0)	8,054 (100.0)	9.2
기 계 류	176 (3.7)	217 (5.4)	377 (5.0)	788 (9.8)	28.3

자료: 한국무역협회

## 2)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결과

### (1) 분석방법론에 대한 개요

한미 FTA가 충북지역에 미치는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구원의 분석자료를 활용하였다. 많은 연구기관에서 한미 FTA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각 연구기관의 특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충북의 산업 중에서 제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 그 외에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통계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분석을 위한 계량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둘째, 충북은 소규모 지역경제로 충북의 경제관련 변수는 전국의 경제변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전국의 파급효과에 준하여 충북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산업연구원의 연구에서는 관세인하에 의한 단기적 영향은 한국 및 미국의 품목별(HS 4단위 기준)수입 시장의 가격탄력성을 시계열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생산성 향상에 의한 장기적 효과는 제조업 부문별 생산성 향상의 편차를 감안하여 생산성 향상 효과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업종별 생산성 향상분이 HS 10단위별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대미수출 증대효과 및 대미 수입감소 효과를 추산하였다.

한미 FTA가 충북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연구원의 추정치를 업종별 충북의 대미 및 대세계 수출·입 비중을 적용하여 추산하였다. 충북의 대미 및 대세계 수출·입 비중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물론 특정 연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해의 특수한 요인이 현실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으나, 충북의 경우 몇 개년도의 평균을 적용할 경우 2005년 지역 수출주력기업의 역외이전효과가 오히려 추산결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2004년 충북 수출은 전년대비 59.5% 증가한 75억달러이었으나, 기업이전의 영향으로 2005년 충북 수출총액은 57억달러로 전년대비 24.9% 감소하였다. 따라서 기업이전에 의한 영향이 사라진 2006년 수출입 실적으로 기준으로 대미 및 대세계 수출·입 비중을 추산하였다.

### (2) 제조업의 파급효과 추정결과

추정결과에 따르면 양국간 관세인하에 따라 제조업 전체로는 충북의 대미 무역수지는 연 900만달러 적자가 예상되며, 7개 주요 업종의 대미무역수지도 연평균 600만달러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종별로는 대미수입의존도가 높은 화학업종이 연간 750만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가장 큰 반면, 자동차 산업은 연간 470만달러 흑자가 예상되었다. 대미 무역거래에서 수입의 경우, 타국에서 수입되던 것이 미국과의 무역조건이 개선되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한 충북 제조업 전체 무역수지는 연 120만달러 적자가 추산된다.

업종별로는 화학제품이 연간 620만달러 적자가 발생하며, 자동차와 전기전자산업의 무역수지는 연간 각각 500만달러, 110만달러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1〉 관세인하 효과

(단위: 천달러, 연평균)

주요 업종	대미수출	대미수입	대미무역수지	무역전환	대세계무역수지
화학제품	767	8,249	-7,482	1,264	-6,218
섬유류	955	1,221	-265	117	-148
생활용품	246	73	173	43	215
철강금속제품	9	54	-45	3	-42
전자전기제품	2,940	3,002	-62	1,124	1,062
자동차	9,609	4,915	4,694	270	4,964
일반기계	343	3,364	-3,021	1,129	-1,892
7개업종 합계	14,870	20,879	-6,009	3,949	-2,060
제조업 합계	17,576	26,769	-9,192	8,017	-1,175

한미 FTA 체결에 의한 직접적인 관세인하로 인한 무역수지 이외에 수입가격 하락, 외국인 투자 증대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인한 효과를 고려하면, 충북의 제조업 전체 무역수지는 연 730만달러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한 대미 무역수지는 연간 전기전자 370만달러, 자동차 180만달러 등 모든 업종에서 흑자가 발생하여 7개 업종에서 총 630만달러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세계 무역수지 또한 모든 업종의 생산성 증대효과로 수출 증가, 수입감소효과가 발생하여 제조업 전체로 연간 4,484만달러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흑자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전기·전자 산업으로 연간 2,563만달러, 화학제품은 연간 440만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

〈표 22〉 생산성 증대 효과

(단위: 천달러, 연평균)

주요 업종	대 미			대 세 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화학제품	267	-233	500	2,528	-1,874	4,402
섬유류	35	-5	40	298	-67	364
생활용품	6	0	6	23	-12	35
철강금속제품	11	0	11	155	-63	217
전자전기제품	3,564	-181	3,744	23,326	-2,304	25,629
자동차	1,664	-133	1,797	1,043	-141	1,184
일반기계	163	-76	240	736	-677	1,413
7개업종 합계	5,709	-629	6,338	28,107	-5,137	33,245
제조업 합계	6,403	-858	7,262	34,077	-10,761	44,838

위에서 살펴본 효과를 총괄하면 한미 FTA체결에 의해 발생하는 제조업 전체의 총효과(관세인하효과+생산성효과)는 중복의 경우,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193만달러 적자가 예상되나, 대세계로는 무역수지가 4,366만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FTA로 인한 대미 무역수지의 총효과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연698만달러), 섬유, 철강, 일반기계에서는 적자가 발생되고, 연간으로 자동차 649만달러, 전기전자 368만달러, 생활용품 18만달러의 흑자가 예상되어 제조업 전체로는 연간 약 193만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세계에 대한 FTA로 인한 총효과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연182만달러)과 일반기계(연 48만달러)에서는 적자가 예상되고 전기전자(연 2,669만달러)와 자동차(연 615만달러)산업 등에서는 흑자가 발생되어 제조업 전체로는 연간 약 4,366만 달러의 흑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3〉 총효과(관세인하효과 + 생산성효과)

(단위: 천달러, 연평균)

주요 업종	대 미			대 세 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화학제품	1,034	8,016	-6,982	3,295	5,111	-1,817
섬유류	990	1,215	-225	1,253	1,037	216
생활용품	252	73	179	269	19	250
철강금속제품	19	54	-35	163	-12	175
전자전기제품	6,504	2,822	3,682	26,266	-426	26,692
자동차	11,273	4,782	6,491	10,652	4,505	6,148
일반기계	506	3,288	-2,781	1,079	1,558	-479
7개업종 합계	20,579	20,250	329	42,977	11,792	31,185
제조업 합계	23,980	25,910	-1,930	51,653	7,990	43,663

#### 4. 한미 FTA와 중복 경제의 과제

지금까지 한미 FTA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유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며 찬반에 대한 논쟁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미FTA가 타결되었고, 이는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중복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선 한미FTA로 인한 직접적 무역효과는 중복경제에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대 수혜품목이라 일컬어지는 자동차와 섬유 부문 등이 중복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며, 중복의 주력 수출산업인 전기·전자의 경우 이미 관세가 철폐되어 FTA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충북의 경우 생산성증가효과가 더 커 총효과로는 한미 FTA로 인해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응방안과 정책도 직접적인 무역뿐만 아니라 자본재의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개선, 외국인 투자유치로 인한 생산증대는 물론 선진기술의 습득 등 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인하(철폐)는 충북 수출기업의 가격인하를 통한 수출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충북의 경우 자동차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가격인하에 따른 수출 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내수시장에서는 미국산 수입제품의 국내가격 하락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 브랜드 가전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질적 향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R&D투자비 확대와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의 확보가 기업 생존의 필수조건이 될 전망이다. 제한된 R&D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우위가 있는 부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소재 대학과의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미 FTA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등 수혜품목 중심으로 미국 수출시장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충북의 경우 완성차 수출비중(2006년 기준 전국 자동차 수출의 0.1%, 대미 자동차 수출의 0.3%)이 낮으나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2006년 기준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의 5.2%점유하고 있다. 미국업체로의 조달증가와 함께 국내 완성차 업체의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부품수출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내 자동차 부품회사와 울산 등 자동차 관련 산업 집적지간의 기술 및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개척단, 박람회 등 지역 소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현실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출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시장개척에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지원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IT·BT 등 충북의 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외 우수기업의 투자유치에 주력해야한다. 한미 FTA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은 오창·오송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업인프라를 강점요인으로 활용하여 충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략산업 분야 세계우수의 기업유치에 주력해야한다.

특히, 오송단지에는 BT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이주가 예정되어 외국기업의 투자 환경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오창의 외국인투자단지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충북도 투자유치팀의 대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산업 집적지와외의 교류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교포 등 가용할 수 있는 인맥을 최대한 가동하여 충북의 강점을 알리는 로드쇼 같은 행사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미 FTA로 인해 이득을 보는 부문도 있지만 반대로 피해가 불가피한 부문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계기업 및 한계업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 할 것이다. 구조조정에 의해 퇴출되는 기업이나 산업의 퇴출장벽을 완화하여 퇴출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퇴출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이·전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공급이 필요하다. 지역 산업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안정적 소득 창출 기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계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직업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노동 시장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노동사무소, 직업훈련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야 한다.

그 외에 한미 FTA를 계기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및 가계의 마인드 함양이 필요하다.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서의 기업과 개인의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

충북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적극적 도전의식이 제고 되어야 하며, 세계 유수의 기업과 인재를 충북으로 끌어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안으로의 세계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회 한미 FTA 특위,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7. 4. 30.
- 권기수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추진현황", 대외경제현안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 김남두 "무역자유화와 경쟁구조 개선의 후생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 제6권 1호, 2000. PP 77~103.
- 박현수, 한미 FTA 협상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 2007. 4. 5.
- 양준석·김홍률 "1990년대 이후 한·미간 무역구조의 변화", 정책연구 02-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이준규 "미국이 맺은 FTA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이흥식 "한미 FTA와 외국인직접투자", KIEP 칼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전경련 "2001년도 우리기업의 대미수출·투자환경 전망 : 설문조사", 국민경제자료 INT 2001-01, 전경련, 2001.
- 최세균, 주요 농산물별 파급영향 및 민감 품목 선정 방향, 2006.
- 충청북도, 한미 FTA 협상타결 대비 후속대책 보고, 2007. 4.

